

중추사육비, 농장여건에 따라 천차만별

— 구입시 사전 정보 확보가 최대 관건 —

□ 취재/김동진 기자

닭의 일생중 산란성적은 병아리 육추, 육성의 성공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추사육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축산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산란계용 중병아리(산란계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5개월 이하의 병아리) 3만수 이상을 사육할 경우 등록을 하여야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중추 사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중추육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추전문 농장이 지역적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무창계사의 사육비율이 커지면서 이에따른 무창중추 전문 농장이 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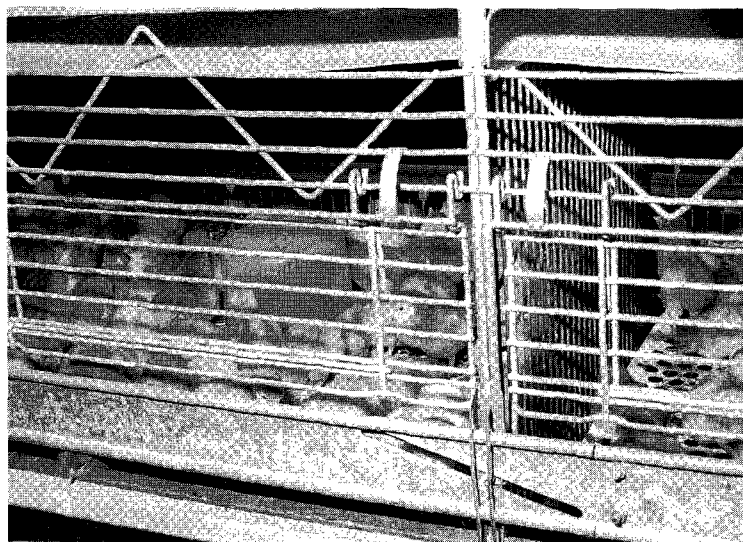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도 외부로 부터 중추를 들일 경우 질병문제, 불량중추문제 등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경향이 짙어 직접 중추를 육성하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

에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농장에 위탁을 하여 중추를 구입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추사육 현황과 사육비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 4단4열의 무창 중추육성 케이지 내부 전경



△ 중추육성은 산란성적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과정이다.

발전 방안을 정리하였다.

1. 중추구입 경로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추구입 경로를 보면 직접 육성하는 경우, 사육자에게 병아리를 공급해주고 위탁사육하는 경우, 사육자에게 병아리, 사료, 약품을 공급하여 위탁사육하는 경우, 중추농장과 직접 계약사육하는 경우, 유통업체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 등 그 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추구입 가격도 병아리 가격, 사료가격 등에 의해 차이가 크며, 유통 경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실례를 살펴보면 동두천의 한 농장의 경우 병아리, 사료, 약품을 중추사육농장에 위탁 사육을 하여 90일에 550원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기타 연료, 깔짚, 중추 이동 등은 사육자가 부담을 하고 만약 백신접종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구입농장에서 부담할 경우 500원에 거래하고 있다.

또한 평택의 한 농장에서는 병아리를 중추농장에 위탁을 하여 70일 기준으로 1,700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의 한 산란계 농장의 경우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고 있는데 70일에서 80일령에 병아리를 받아 2,200

~2,500원까지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 직접 육성시킨 중추가 중추전문농장에서 구입한 중추보다 질병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고 산란성적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사육비 분석

다음은 충북에서 중추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M 농장을 방문, 사육비를 분석해 보았다.

이 농장의 경우 6만수의 중추가 한 계사(4단4열 직립식)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1인의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고 있어 인건비를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있다.

사료의 경우는 가금티푸스 예방 차원으로 클럼블 사료를 특수 제작하여 급여를 하고 있어 단가가 타 사료회사에 비해 비싸지만 70일령까지 1수당 2.5kg을 소비하여 적게 먹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내 한 회사의 사료가격은 초생추가 kg당 264

표1. M 농장의 중추사육비 분석

항 목	가격(원)	비율 (%)	산 출 내 역
사 료 비	779	59.7	초생추사료 - 489원(326원×1.5kg), 42일령 까지 중추사료 - 290원(290원×1kg), 70일령 까지
약 품 비	59.2	4.5	IB(7일령, 점안), 2회×2.7원/수=5.4원 ILT, 1회(35-45일령)×3원/수=3원 IBD(14, 18일령), 3회×4.8원/수=14.4원 오일혼합백신(28일령), 1회×25.6원/수=25.6원 계두1침(1일령), 1회×1.8원/100수=1.8원 계두쌍침(70일령), 1회×9원/수=9원
인 건 비	166	12.7	입추준비(7명×30,000원)÷60,000수=3.5원 다비킹+1차IB, (36명×30,000원)÷60,000수=18원 ILT 1차 점안(16명×30,000원)÷60,000수=8원 오일혼합백신(20명×30,000원)÷60,000수=10원 계두1침(24명×30,000원)÷60,000수=12원 계두쌍침(44명×30,000원)÷60,000수=22원 닭 이동시(35명×30,000원)÷60,000수=17.5원 출하후 청소비(30명×30,000원)÷60,000수=15원 고정월급(관리자 1인), 1,200,000원×1인×3개월 =3,600,000원÷60,000수=60원
소 독 비	10	0.8	
닭차운반비	70	5.3	
연 료 비	16.6	1.3	1,000,000원÷60,000수
전 기 료	6.25	0.5	375,000÷60,000원
수 리 비	24.5	1.9	1,475,000÷60,000수
차량유지비	60	4.6	360,000원÷60,000수
제세공과금	5	0.4	300,000원÷60,000원
감가상각비	108	8.3	건물 - 2,153원/수당÷(4번×20년)=26.9원 기구 - 6,500원/수당÷(4번×20년)=81.2원
총 계	1,304.5	100	

* 병아리 가격은 변동이 심해 계산에 넣지 않았음.

원이고 중추사료는 244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전체 사료회사의 평균가격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이다.

6만수 한동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농장의 중추육성비는 자본금 이자(토지, 기사, 기구비)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

며 관리자 외에 가족들이 일을 도와주는데 따른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고 기타 비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육성비가 200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될 것이다.

백신접종 등에 드는 인건비

는 1인 3만원으로 계산한 이 농장의 순수 중추 육성비는 수당 1,304.5원으로 나타났으며 병아리 가격의 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만약 병아리값이 650원에 거래된다면 수당 1,954.5원으로 나타난다.

이 농장의 경우 농가가 원할 경우 닭티푸스 백신 주사를 55~60일령 사이에 투여하는데 수당 150원이 추가되며 이에 대한 경비는 산란계 농장에서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 거래되는 중추는 90일령에 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70일령 보다 약 496.5원의 사육비가 더 추가되어 1,801원으로 계산되고 있어 일령이 증가할 수록 사육비는 증가하여 1일령씩만 차이가 나더라도 그 비용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3. 중추육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통업체에서 중추를 소개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수당 보통 50원 정도가 통용되고 있는데 병아리가 적게 나와 중추가 모자랄 경우 유통업자들은 육성비 보다 200~300원

을 더 붙여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농가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통업자들은 이 속성을 이용해 일령을 조작하여 상당량의 차액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70일령 이후 1일령이 경과할수록 약 25원 정도의 육성비가 증가하므로 1주일만 속이더라도 거의 200원이 상승되며 채란농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사료문제를 보더라도 7월 1일 부터 사료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농장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경영사정들이 좋지 않은 관계로 현찰을 구매하는 농가가 극히 일부이고 외상사료를 쓰는 농가들이 많아 농가들의 부담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사료회사 사정과 농가들의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 이상 외상사료를 쓸 경우 1~3%까지 이자부담이 계산되며 어느 농가에서는 8개월까지 외상사료를 쓰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추농장에서 길러진 병아리들을 유통업자가 품종들을 섞어 사양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사육비를 줄이기 위해 중추농장에서 백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 채란농가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광주의 한 농가에서는 우량한 중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추농장을 직접 건립하여 키우는 것이 좋은 줄은 알고 있으나 여건상 힘들어 유통이나 사육업자들에게 부탁하여 70일 기준에 1,800원에서 부터 2,100원까지를 지불하며 중추를 구입하고 있는데 받고난 후 산란하는 시기가 천차만별이고 닭들이 약하여 산란율에서 크게 밀도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여러번 있다는 경험담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질병이 있는 중추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리해준다는 명분으로 싸게 구입하여 타지역에 유통을 시켜주는 유통업자들도 간혹 있으며 농가들도 덤핑나오는 닭들을 싼맛에 구입하고 피해를 보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닭 운송차의 위생문제

가 사양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즉 전문 중추농장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직접 운송되어진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노계를 출하하던 차량들이 유통을 통해 닭들이 이동되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나타나 소독이 철저히 되든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양가들은 중추를 받을때 품종에 맞는 표준 체중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유통이나 중추업자들이 일령을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혈청검사를 통해 백신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닭을 받아야 할 것이며 사양가는 중추농장을 방문하여 자기가 받을 계군을 가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직접사육을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위탁)사육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만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추농장과 채란업자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양계**